

## 중일전쟁시기 北京이란 문화공간\*

- 周作人の 경우를 중심으로 -

金 美 廷\*\*

<目 次>

I. 들어가는 글	V. 藝文社와 <武德報>, 그리고
II. 점령지 北京의 정치역학	하야시 후사오(林房雄)
III. 문인조직과 문화기구	VI. ‘반동노작가’ 사건의 풍파
IV. 周作人の 지위와 北京 문예계의	VII. <중국의 사상문제>를 둘러싼
물밑 대립양상	정치역학
	VIII. 맺는 글

### I. 들어가는 글

1937년 노구교사건은 국지적인 분쟁일 따름일 것이란 일반 예상을 뒤엎고 중일간의 전면전 양상을 띠며 그해 7월 29일 北京이 함락됐다. 이에 따라 北京대학 淸華대학이 南遷을 선언하게 되고, 北京대학 문학원 원장 胡適 및 梁實秋 葉聖陶 등도 北京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周作人は 北京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왜 北京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華北政務委員會 교육독판이란 고위친일관료 -달리 말하자면 漢奸-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설이 분분하다. 하지만 본고는 그가 왜 北京을 떠나지 않았는지 혹은 그가 왜 결국 친일부역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관심을 일단 유보한다.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찌됐건 점령지에 남아

\* 이 논문은 2009년도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연구과제개발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있던 자들의 일상생활의 근거지이자 활동무대인 北京이란 공간 자체이다. 전쟁상황에 따라 새로운 사회질서와 지배세력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전에 익숙했던 생활기반이나 방식은 쉽사리 붕괴되고, 서재 안 대학교수와 문화인의 삶도 변화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한 대응은 사람마다 달랐고,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과 기구 및 사람 사이의 구분은 부지불식간에 그들의 삶의 방향과 방식을 제한했으며,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사상과 행동의지를 표출했다. 이런 北京의 문화공간 한가운데에는 명실상부 北京을 대표하던 문화 명인, 周作人이 자리잡고 있었다.

## II. 점령지 北京의 정치역학

중일전쟁 초기 승승장구하던 일본이지만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해자인 중국뿐 아니라 침략자인 일본도 중국인의 저항에 맞서 전선을 유지하고 점령지를 지배하기 위한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毛澤東의 예상대로 중국의 광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를 일본이 완전히 장악하고 실제적인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전 초기부터 일본정부나 정치세력들 사이에서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전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를 두고 치열한 정치적 논란이 거듭됐다. 그리고 주요 도시와 항만 도로 등에 대한 점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38년에 이르게 되자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지배보다는 친일정치세력을 내세워 괴뢰정권을 만들고 이들을 통한 간접적 통치를 행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됐다. 중국과의 일정한 타협을 통하여 일본의 ‘내면적 지도’를 실현하면서 표면적으로 중국의 정치적 독립을 인정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수탈을 안정화시키면서 일본이 주도하는 공동국방의 군사적 기지로 중국을 활용한다는 이른 바 ‘동아연맹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고<sup>1)</sup>, 이 주

1) 배경한: <중일전쟁시기 중국에서의 동아연맹운동과 汪精衛정권>《중국근현대

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이른 바 ‘코노에(近衛)성명’의 ‘정치적 독립’이란 원칙이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하여 汪精衛의 重慶탈출과 친일정권의 수립을 불러온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sup>2)</sup>이다.

汪精衛의 신중양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汪精衛는 일본 당국 및 華北의 기존 친일정권(즉 華北 中華民國臨時政府)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華北의 특수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알려진 이 갈등은 결국 1939년 12월 ‘日華新關係調整要綱’에서 華北에 대한 일본의 군사 경제 정치적 지배권을 명문화하고, 이어서 1940년 1월에 北京의 ‘중화민국임시정부’ 南京의 ‘유신정부’ ‘蒙疆정부’ 대표와의 회담에서 신중양정부와는 별개로 北京에 華北政務委員會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전면 인정하는 것<sup>3)</sup>으로 마무리 된다. 결국 北京이란 특수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도시는 일본 점령당국, 그리고 그들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있던 華北政務委員會, 그리고 汪精衛의 南京정부로 대표되는 3개의 주요 정치세력의 갈등의 장이 되었다. 여기에 막후에서 반일 지하활동을 벌이는 重慶의 국민당과 延安의 공산당 세력도 암암리에 활동하면서 모든 정치세력은 각각 자신의 정치적 기반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밑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그 각축은 상대방이나 반대편을 설득하고 자신들에게 끌어들이 수 있는 이념의 정당성 확보라는 또다른 문화사상전쟁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사연구》 제21집에서 인용.

- 2) 임성모: <동아협동체론과 ‘신질서’의 입계>《동아시아의 지역질서》 172쪽에서 인용.
- 3) 배경한: <중일전쟁시기의 汪精衛정권과 新民會>《동양사학연구, 93집》에서 정리 인용.

### Ⅲ. 문인조직과 문화기구

그러면 점령지 北京에서 문화인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조직과 기구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中國淪陷區文學大系, 史料卷》의 ‘華北淪陷區’ 편에는 당시 존재했던 문화조직으로 華北作家協會 등 21개 문학단체, 新民映畫會 등 33개 예술단체 (華北新劇協會 산하 12개 劇社 포함), 新民印書館 등 41개 문화출판단체(中國文化團體聯合會 소속 8개 단체 및 山東文化協會 산하 7개 단체 포함)가 보인다. 이 가운데 12개 문학단체, 32개 예술단체, 30개 문화단체 등 전체 華北 점령지구 문화조직 가운데 78% 가량이 北京에서 조직되었고 北京을 주활동무대<sup>4)</sup>로 삼았다. 조직의 영향력이나 비중 등을 계량화할 수 있다면, 北京 중심의 이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北京함락 후 가장 먼저 생긴 문인조직은 華北文藝協會였다. 1941년 1월 張鐵笙, 陸離, 張我軍 등이 발기인이 되었고, 당시 교육독관에 막 취임한 周作人이 대표를 과견하여 축사를 하였다. 협회 성원 가운데 일본인이 없었고, 조직과정에서도 일본측의 개입이 없었으며 정치적 색채가 강하지 않은 ‘예술을 위한 예술’의 동인 모임과 비슷한 성격<sup>5)</sup>이었다. 점령 초기 일본당국의 문화적 통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의 자생적인 문인조직이었기에 정치적 상황변화에 의해 쉽게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조직이기도 했다. 결국 華北文藝協會는 5개월만에 단명<sup>6)</sup>했다.

이에 반해 1942년 9월 성립된 華北作家協會는 점령지구에서 문학자들에 대한 조직과 통제에 착수한 일본당국과 華北政務委員會 측의 적극적인

4) 錢理群 主編: 《中國淪陷區文學大系, 史料卷》 226~229쪽.

5) 張泉: 《淪陷時期北京文學8年》 108쪽.

6) 華北文藝協會가 단명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단지 “재정이 부족했고, 신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로 알려져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점령당국이 화북문예협회의 조직을 불허한 것으로 추측된다. 張泉: 《같은 책》 108쪽 참고.

지지 아래 탄생했다. 주요 참여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일본 華北주둔군 대표이자 武德報社의 사장인 가메타니 토시카즈(龜谷利一)를 중심으로 武德報社 관련인물(柳龍光, 王則, 德玉葆 등)들, 노구교사건 이후 민간사상단체의 외파를 띠고 있었지만 점령군 당국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놓여 있던 괴뢰정권(중화민국임시정부)의 대민선전조직이었던 新民會<sup>7)</sup> 소속인물(黃道明 등), 임시정부의 후신 華北政務委員會 교육총서 인물(徐白林 등)들이 대거 참가한 상황도 華北作家協會의 성격의 일단을 보여준다. “華北작가 정신의 단결을 통해 문예 학술 작품 창작의 발전을 촉진하고, 華北문화의 재건과 국민의 중심사상 확립의 일환으로 신국민운동을 실천하여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해방을 완성한다”는 설립 취지에서도 이 조직의 농후한 정치적 색채와 新民會의 국민중심사상 수립운동<sup>8)</sup> 및 일본당국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당시 華北政務委員會 교육독판이었던 周作人也 “당연직 혹은 이름 뿐인 겸직”(周作人の 해명서)<sup>9)</sup>으로서 평의원 회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華北作家協會 같은 정치적 하부문인조직 보다 문인들의 삶에 더욱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그들이 관여했던 문학사단과 문예잡지 등 출판물과 기구라고 할 수 있다. 北京이 개전 초기 함락되는 상황에서 北京에 남아있던 문화인들이 ‘蘇武’식의 침묵에 빠져들면서 점령 초기 北京의 문학간행물은 극소수 종합성 잡지를 제외하곤 모조리 정간되는 상황을 맞는다. 이후 아직 일본군부의 문화통제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내 문예간행물, 신문의 문예부간 등이 나타나며 서서히 문예를 통한 문화공간이 회복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 속속 등장했던 주요 문예 간행물은 상당 부분 周作人和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7) 배경한: <중일전쟁시기의 汪精衛정권과 新民會>《동양사학연구》 93집, 127쪽.

8) 新民會의 국민중심사상 수립에 대한 호소는 이후 논란을 일으키는 周作人の <中國的思想問題>의 집필동기가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서술.

9) 張菊香 張鐵榮 편저: 《周作人年譜》 711쪽.

## IV. 周作人の 지위와 北京 문예계의 몰락 대립양상

北京에 남은 이를 “李陵으로 보지 말고 蘇武로 보아줄 것”<sup>10)</sup>을 부탁하며 번역과 강의로 은거에 들어갔던 周作人は 1938년 이른바 ‘更生中國文化建設座談會’에 참석함으로써 만민의 표적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사실상 더 이상 항전지구에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린 상황에서 周作人は 빗발치는 비난과 적지 않은 대일합작의 유혹을 침묵으로 버텨내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古都 北京에는 문화적 갈증과 수요가 생겨나게 되었고, 대부분의 문학가가 北京을 떠나버린 상황에서 周作人 이외에 다른 문화적 구심점은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周作人 주위의 많은 인사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周作人에게 창작을 권유했고, 마침내 周作人は 끈질기게 寫作을 권했던 方紀生의 《朔風》 월간에 <談勸酒>, <談搔痒>, <女人罵街> 등 전쟁 전후에 썼던 舊稿를 실기 시작한다. “北京문단의 적막을 깨뜨리기 위해” 창간된 《朔風》은 초기 “정치를 논하지 않고 시민적 취미에 영합하지 않으며 상아탑에 몸을 숨긴 채 진지하게 문학에 종사하는 태도와 격조”로 “당시 점령지구 다수 작가의 심리적 요구를 반영”하며 점령 초기 北京의 문단을 주도해나갔다. 하지만 《朔風》에 대한 周作人の 투고는 길지 못했다. 1939년 元월에 벌어진 周作人 저격사건으로 그의 원고가 끊기자<sup>11)</sup> 《朔風》은 동력을 잃게 되었고, 이어 方紀生이 주편의 자리를 떠나면서 《朔風》은 어느 순간 “반공은 모든 이의 책임”이요, “중일의 합작으로 공존공영 이룩하자!”<sup>12)</sup>

10) 周作人: 《知堂書信》 275쪽.

11) 周作人저격사건과 《朔風》에 대한 투고중단사태에 대해 木山英雄은 그의 저서 《北京苦住庵記》에서 《朔風》에 대한 투고가 혈기왕성한 청년들의 불만을 일으켜 저격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 方紀生에 의해 중단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周作人저격사건의 배후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이 분분하지만, 사건 직후 범인이 중국애국청년들이라는 일부의 추측이 있었고, 일반인의 심리와 감성에는 周作人の ‘更生중국문화건설좌담회’의 참석과 창작활동 재개 자체가 ‘반민족’적으로 비춰졌을 가능성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등의 표어와 구호가 난무하는 종합정치잡지로 변신하고 말았다.

다른 한편 1939년 9월, 張深切에 의해 華北점령지구 문단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규모가 컸던” 문학잡지 《中國文藝》가 창간되고, 周作人は 대략 15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기 작품을 발표한다. “우수작가를 모시고, 신진작가를 배양하여 신문의 창조와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창간된 《中國文藝》는 “모든 점령지구 다른 문학간행물과 비교할 수 없는”, “華北문예인의 보고”<sup>13)</sup>로 불리워졌다. 그런데 이 《中國文藝》 창간호의 편집 후기에는 발간 취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특별히 周作人에 대해 찬사를 싣고 있다.

나라도 망하고, 黨도 망하며, 惡도 없앨 수 있지만 문화는 멸망하지 않는 법, … 우리의 周作人은 수년 간의 침묵을 깨고 의연히 우리에게 <俞理初의 談諧>라는 운치있는 글을 주셨다. 이는 우리의 영광이자 독자들에게도 분명 행복한 일일 것이다. 周作人은 우리의 복두성이다. 그는 비록 해성의 활발함 혹은 화성의 찬란함과는 다르지만 존재 그 자체로 南面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14)</sup>

‘南面’한 ‘복두성’이란 조금은 과도한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北京문단에서 周作人의 위치이다. 이 시기 周作人은 비록 北京대학 도서관관장(1939년 1월)과 동대학 문학원 원장(1939년 8월)직에 나서며 점령지구에서 대외적(친일)행보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인 정치권력의 장에 뛰어든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周作人은 張深切과 결코 깊은 교유관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찬양어가 나온 것은 周作人의 문단에서의 명성과 지위를 《中國文藝》의 기치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張深切의 시도는 적중했던 것 같다. 《中國文藝》는 매기 5, 6천부가 팔리며 華北문단의 가장 중요한 잡지가 되었다. 하지만

12) 이상의 인용 錢理群 主編: 《中國淪陷區文學大系, 史料卷》 605쪽.

13) 이상의 인용 錢理群 主編: 《中國淪陷區文學大系, 史料卷》 607, 606쪽.

14) 木山英雄: 《北京苦住庵記》 148쪽에서 재인용.

이런 성공은 곧 출판계 내부의 질서의 대상이자 점령군 당국의 의심의 표적이 되어 점차 본래의 면모를 잃다가 대략 15기를 전후해서부터 《朔風》과 유사한 정치적 색채 농후한 문예잡지의 길을 걷게 되었다.

《朔風》과 《中國文藝》의 경우에서 확인한 것처럼, 점령지 北京에서 周作人의 문화적 지위는 여전히 확고했다. 순수문학을 표방한 다른 문예잡지들도 周作人의 투고를 받고자 줄을 서면서 周作人의 참가여부는 은연 중에 그 간행물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이 문화적 통제에 착수하면서 이런 周作人의 존재는 점차 불편하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古都의 문화인의 분위기를 지닌 周作人의 미지근한 교섭 태도와 정치적 담화는 일본측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1940년 12월 華北政務委員會 교육독판으로 취임한 周作人이었지만 여러 모로 볼 때 그의 활동방식이나 행동범위는 일본군부가 기대했던 적극적인 친일선전 및 실제적 활약과는 거리가 있는 일반 관료의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일 따름이었다. 이에 일본 측의 몇몇 인물은 周作人을 제외한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이제 서서히 北京문단은 周作人을 한 축으로 하는 일군의 문인학자들의 모임과 일본세력을 뒤에 업은 신진 문인들의 모임으로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그 가운데는 周作人의 제자 중의 제자, 심복 중의 심복 沈啓無가 끼어 있었다.

#### V. 藝文社와 <武德報>, 그리고 하야시 후사오(林房雄)

1943년 제2차 대동아문학자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일본의 문학보국회를 대표하여 중국에 왔던 가와카미 테스타로(河上徹太郎)는 대회 준비 상황에 대한 담화 중 당시의 北京문단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北京에는 작년 대회에 참가했던 北京대학 문학원 교수 錢稻孫, 沈啓無, 張我軍, 尤炳圻 등이 있다. 금년에 周作人이 리더가 되어 이들을 포함하여

藝文社를 조직하니 침묵하던 많은 우수한 작가가 활동을 시작했다. 다른 한편, 北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 <武德報>를 배경으로 백여명의 소장작가를 포함한 華北作家協會가 있다. 양자는 사실상 교류하는 하나의 통일체이다.<sup>15)</sup>

河上徹太郎은 당시 北京문단을 양분하는 문단 조직으로 周作人 중심의 藝文社, 그리고 <武德報>를 끼고있는 華北作家協會를 거론하고 있다. 藝文社는 일본 平凡社의 시모나카 야사부로(下中彌三郎)의 후원 아래, 周作人을 중심으로 설립됐던 '중일문화진흥회'를 모체로 성립됐다. 중일문화진흥회가 점령지에서 통화팽창으로 고통받는 지식인들의 생활을 돕고 위원들의 저작을 출판하기 위해, 동시에 시국에 영합하지 않는 우량도서의 출판을 위해 설립<sup>16)</sup>되었음을 고려할 때, 藝文社 역시 비슷한 목표를 지니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藝文社는 문화사업을 통한 중일합작에 뜻을 두었던 신사정책의 일본 서점대표를 후원자로 둔 기구였고, 정치성이 강하지 않은 순수문학적인 성격을 표방하여 그 기관지 <<藝文雜誌>>에는 많은 北京의 지식인 학자들이 참가했다.

이에 반해 武德報社는 점령지구 중국인들에 대한 선전 선무를 위해, 1938년 9월 北京에서 일본 華北주둔군 보도부 별도반에 의해 성립되었다. 1940년 말 명의상으로 華北 유일의 자주적 경영을 하는 독립문화사업단체로 탈바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일본군 보도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군부의 보도기관<sup>17)</sup>이었다. 앞에서 소개한 바 있었던 <<中國文藝>>도 이 武德報社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중국지식인들은 중국 문화 엘리트들을 보호하는 藝文社와 일본 군부의 요구에 예외 없이 충실한 武德報社의 관계를 상호 대립적으로 간주<sup>18)</sup>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15) 木山英雄: <大東亞文學者大會與周作人>에서 재인용.

16) 木山英雄: <大東亞文學者大會與周作人><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8.1기.

17) 武德報社가 군부의 보도기관이었음은 武德이란 명칭이 '武運長久'에서 나온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張泉: <<淪陷時期北京文學8年>> 102~103쪽 참고.

18) 錢理群 주편: <<中國淪陷區文學大系, 史料卷>> 610~611쪽 참고.

관계는 나아가 《藝文雜誌》대 《中國文藝》, 또한 일명 北京大學派(北大幫) 대 華北作家協會의 대립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하지만 두 단체는 사실상 전쟁에 복무한다는 동일한 사명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藝文社의 성원들은 단순한 명예직이건 실제 활동분자건 대부분 《中國文藝》와 華北作家協會의 명단에 망라되어 있기도 했다. 따라서 두 단체의 대립 혹은 병치 양상이란 실질적으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이었다. 河上徹太郎이 “양자는 교류하는, 하나의 통합체”라고 한 것도 이런 의미였다. 적어도 일본문학보국회의 ‘문화사절’로 北京에 온 林房雄이 새로운 문학운동을 구상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1943년 北京에 도착, 8개월을 체류하며 北京문단에 강력한 파란을 몰고 온 林房雄은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에 뛰어 들었지만 이후 국수적 민족주의로 전향하여 일본의 태평양전쟁에 문화방면에서 활약했던 작가이다. 그는 1943년 자신이 직접 목도했던 기왕의 北京의 관료식 문화운동의 상황을 이른 바 “이중 간관주의”, “폐물 이용주의”<sup>19)</sup> 등으로 분석하고 비판한다. 그는 北京의 중일문화 제휴의 실상이란 문화에 문외한인 일본군부 당국과 점령지 문화인의 노련한 처세가 결합되어 끊임없이 대회와 총회 등 행사를 열고, 보고용 성과에 매달리며 국비만 축내는 전시행정의 결정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태평양전쟁이란 새로운 국면에서 영도적 의미가 있는 문화강령이나 문학운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진단 속에서 그가 가장 먼저 착수한 일은 노작가 위주의 모호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北京문단을 보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친일적 소장작가 중심으로 재편하여 중일문화협작의 실질을 기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계획

19) 張泉: 《淪陷時期北京文學8年》 36~39쪽 참고 여기서 “이중 간관주의”란 문화협회나 단체의 강령을 발표할 때, 표면적으로는 ‘자주적으로 신중국문화를 건설한다’는 취지를 내걸어 중국지식인들을 끌어들이고, 내면적으로는 ‘반공대책을 수립하고 영미사상을 박멸한다’는 간판을 내걸어 관청당국에서 보조를 받아 탕진하는 행위를 말하고, “폐물 이용주의”란 문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이며 걸만 꾸미고 각종 대회와 총회를 열어 공적 경비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을 실현할 수 있는 책임자로 沈啓無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周作人은 沈啓無와 자신의 결별과정과 北京문단의 분화과정에 대해 제법 상세한 기록<sup>20)</sup>을 남기고 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943년 봄 林房雄이 北京에 왔을 때 일본문학 정세에 밝은 사람은 대부분 그를 멸시했지만 沈啓無만은 그에게 정성을 다해 林房雄과 가까워졌다. 이후 林房雄의 지지 아래 藝文社를 설립하고 《藝文雜誌》와 《文學集刊》을 발행하기로 했지만 《文學集刊》의 주편을 맡기로 했던 沈啓無가 張深切과의 불화로 《文學集刊》을 떠났고, 아울러 문단의 ‘혁신’을 주장하는 가운데 周作人이 포함된 중일문화진흥회측에 공세를 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周作人도 藝文社를 떠날 것을 요구했으나, 周作人은 거절했다. 이후 沈啓無가 주최한 文學茶話會에서 내빈으로 참석한 林房雄은 공개적으로 중국의 노작가(곧 周作人)에 대해 공격함으로써 구체적인 분열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林房雄이 개입하면서 北京의 문화적 공간은 양분되었다. 周作人의 藝文社를 중심으로 문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작가 그룹과 문단의 ‘혁신’을 외치며 문단의 권력을 장악하려 하는 소장그룹이 그것이었다. 이 혈기왕성한 소장그룹은 단지 젊다는 지표만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1942년부터 滿洲에서 北京으로 유입된 일군의 문학청년들이 華北作家協會의 주류를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北京에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그들은 일단은 빈곤 때문에, 또한 어긋난 반항심리 때문에 周作人 쪽이 아닌 林房雄과 武德報社 주위로 몰려드는 경향<sup>21)</sup>이 있었다. 그들은 北京을 본거지로 하는 지식인들에게 모종의 열등감을 느끼며 ‘대동아문학’의 적극적인 고취자가 됨으로서 침묵 속에 정치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있는 노작가

20) 周作人: <文壇之分化>, 《周作人集外文》 601~605쪽, <關於老作家>《같은 책》 597~600쪽 등 沈啓無는 周作人에 의해 파문을 당한 이후 거의 자신의 행적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 대한 재구성은 대부분 周作人의 일련의 관련 글을 통해 이루어진다.

21) 木山英雄: <大東亞文學者大會與周作人>《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8.1.

들을 쓸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沈啓無가 周作人에게 노골적인 반항을 보인 것도 이러한 상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제2차 대동아문학자대회에서의 풍파, 일본군국주의의 문화적 욕구를 대변하는 가타오카 테쓰베이(片岡鐵兵)의 이른 바 ‘반동노작가’ 사건도 발생한 것이다.

## VI. ‘반동노작가’ 사건의 풍파

제2차 대동아문학자대회는 1943년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일본 東京에서 거행됐다. 중국 점령구 및 만주 몽고의 대표 26인과 조선대표 4명과 臺灣대표 6인을 포함한 일본 대표 100여명이 참가했고, 北京대표는 沈啓無, 陳綿, 張我軍, 徐白林, 柳龍光, 蔣義方 등이었다. 제1차 대동아문학자대회 참가인들은 기본적으로 周作人에 의해 추천·과견되었었지만, 제2차 대회에 참가인들은 철저히 일본문학보국회와 林房雄 등의 의도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周作人은 이미 교육독판의 자리에서 물러나 실질적인 권한도 없었고, 또한 錢稻孫, 尤炳圻 등 이른바 北大派가 제외되고 滿洲에서 온 청년작가의 대표 柳龍光, 신진작가 陳綿, 徐白林 등이 포함된 것이 이러한 北京문단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한다. 이 대회에 참가한 중국대표들이 제1차 대회와 달리 훨씬 열광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표명한 사실<sup>22)</sup>도 달라진 중국대표들의 성향과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반동노작가를 소탕하라는 片岡鐵兵의 도발적 발언도 나타났다.

片岡鐵兵의 발언은 대회 3일째 분조 토론에서 나왔다. <중국문학의 확립을 호소함>이란 제목의 발언은 명시적으로 周作人을 거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격의 대상이 周作人임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22) 張泉: 《淪陷時期北京文學8年》 46쪽 참고. 예를 들어 陳綿 같은 이는 일본문학자들의 군세고 충성스런 정신은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고 분발하게 한다며 작가들에게 “무장한 동지들이여!”,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온마음을 바치라!”고 호소하고 있다.

내가 지금 문제삼는 것은 화평지구에 존재하는 반동노작가다. 그의 몸은 화평지구에 있지만 제군의 이상과 열정, 문학활동과 대립되는 유력한 문학자다. ... 이 노작가는 세속인들의 신뢰의 표적이다. 따라서 민중과 지식계급에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과거 그의 문학상의 공적을 돌아보서는 안된다. ... 그는 독자적인 매력 풍부한 표현으로 제군들을 비웃으며 신중국의 창조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제군과 우리들의 전진의 장애이고, 적극적인 방해자이다. 그는 모든 동아시아에서 파괴해야만 하는 타협의 우상이다. 그는 낡은 중국의 초월적 사대주의와 제1차 문학혁명에서 획득한 서양문학정신 사이의 기묘한 혼혈아일 따름이다.<sup>23)</sup>

周作人이 이 발언에 접한 것은 1943년 말이었다. 그는 발언의 내용을 확인하자 이것이 곧 林房雄 — 沈啓無 — 片岡鐵兵으로 이어지는 맥락 속에서 돌출된 자신에 대한 청산 발언임을 확신한다. 周作人은 반격을 준비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일본군부의 의중을 대변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선부른 반격은 곧 ‘반일’의 혐의를 덮어줄 수 있었고, 일단 반일의 혐의를 받으면 그로서도 속수무책이었다. 北京에 남아있던 周作人으로서는 외형상 ‘반일’이 아닌 전제에서 운신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은 개인적 색채의 반격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周作人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자신의 제자 沈啓無에 대한 과문이었다. “沈楊, 즉 沈啓無는 鄙人の 지난 날 授業弟子로서 상종한지 수년이 되었으나 근래 언동이 불손하고 방자히 공격한 즉 이에 과문 성명을 내어 일체의 공사관계를 단절하니, 자세한 사정은 필요하다면 다시 발표하겠다”<sup>24)</sup>는 불과 55자로 이루어진 명함 크기의 공개과문성명은 北京문화계를 뒤흔들었다. 이어 周作人은 片岡鐵兵의 공격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한편, 일본문학보국회와 片岡鐵兵에게 자신을 향한 발언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요구하며 정해진 시간까지 답변이 없을 시는 일본문학보국회와의 교

23) 片岡鐵兵: <吁請中國文學之確立>, 木山英雄: 《北京苦住庵記》 199~200쪽에 전편 수록.

24) 周作人: <破門聲明>1944년 3,23 <中華日報>게재, 《周作人集外文》 594쪽.

류에 ‘신중’(즉 사절)을 기하겠다는 압력성 공개서신을 보낸다. 계속해서 그는 上海 汪精衛派 계통의 <中華日報>, <《古今》>에 사건과 관련된 일련의 글(<一封信>, <關於反動老作家>, <文壇之分化>, <一封信之後>, <遇狼的故事> 등)을 보내, 사건의 경과와 자신의 입장 및 태도를 밝힌다.

이렇게 되자 北京의 문화조직과 단체는 일제히 沈啓無와의 관계를 청산했다. 沈啓無와 ‘일체의 공사관계를 단절’하겠다는 周作人の 성명으로 沈啓無와 周作人 가운데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마당에, 어느 누구도 沈啓無를 선택할 수는 없었다. 그를 부추겼던 林房雄도 그의 돌출적 행보로 인해 일본측 인사들로부터 불만을 산 채 동남아로 떠나 있었다. 武德報社의 몇몇 인사가 선의를 베풀고자 했지만, 스승에게 과문당한 沈啓無가 北京에서安居할 곳은 없었다. 北京은 그런 곳이었다.

다른 한편 일본 문화계에서도 중일문화협작의 과행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片岡鐵兵의 경솔함을 탓하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片岡鐵兵의 해명 및 무사노코오지 사내아쓰(武者小路實篤)와 나가요 요시로(長與善郎) 같은 일본문학보국회 인사들의 정중한 사과 및 위로의 편지로 일단 사건은 일단락된다. 林房雄이나 그를 배후로 하는 중국 소장작가들의 문단 재편 기도와 상관없이 중일 양국의 문화계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周作人の 주도면밀한 반격은 판정승을 거둔 셈이었다.

## VII. <중국의 사상문제>를 둘러싼 정치역학의 문제

“나는 본래 경박하게 어떤 일을 낙관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유독 중국의 사상문제만은 낙관하고 있다”는 말로 시작되는 <중국의 사상문제>는 일종의 ‘민중성’과 ‘생존의 합리성’이라는 서구근대사상의 기반 위에, ‘禹稷’을 대표로 하는 원시유교의 ‘유가인문주의’를 외피<sup>25)</sup>를 입혀 중국전통유가사

25) 周作인이 유가를 재평가하며 현대적인 사상체제로 재확립하고자 했음은 <中國的思想問題> 뿐 아니라, 그 자신의 지적(<《周作人回想錄》>)대로 <漢文學的

상을 현대화하고, 그것이 중국문화의 불변하는 원천임을 천명한 글이다.

원시적 생존의 도덕은 仁의 뿌리이며 인류 공동의 것이다. 그렇지만 그 표현은 각각 다르니 각 민족심리의 발달에도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생존을 구하다 영생으로, 나아가 無生으로까지 나아가니 유태와 인도의 종교취향이 그것이다. 어떤 이들은 생존에서 권력 추구로 전화하니 로마의 제국주의가 그것이다. 유독 중국만은 단순한 現世主義를 고집하며 實際를 말하고 中庸을 지키니 共濟, 즉 요즘 말로 성숙한 공존공영을 목표로 할 뿐, 무슨 신비하고 고상한 주장이 아닌 것이다. ... 중국인의 삶의 요구는 매우 단순하고 또한 절박하다. 그들은 생존을 희구한다. 그들의 생존도덕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지만, 성인처럼 자신을 해치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지는 못한다. 다른 종교의 국민들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꿈꾸며 영생을 위해 불속에 뛰어들지만, 중국인은 신이나 道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때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이 생존이 無望하다고 느낄 때이다. ... 중국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亂이다. 그리고 이 亂은 모두 인민들의 求生意志의 반동이며, 무슨 주의나 이론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다. ... 중국의 사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난을 방지하는 것(防亂)'이다. 난을 방지하려면 우선 '난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防造亂)'해야 하고, 그 책임은 정치에 있지 교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sup>26)</sup>

사실 北京에서 이런 글의 발표가 허용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글은 비록 대동아공영권을 부르짖었던 일본측의 '공존공영' 등의 용어가 장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글의 요지는 중국인민의 생존본능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이며, '생존'을 중시하는 현세적 태도는 '유가'에서 뿌리박은 중국 특유의 건전하고 확고한 중심사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亂에 대한 책

傳統><漢文學的前途><中國文學上的兩種思想> 등 일련의 문화사상 전문 문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과정과 의의에 대해서는 錢理群: <周作人傳>, 김미정: <중일전쟁시기 周作人の 친일행위에 대한 일고찰> 등 참고.

26) 周作人: <中國的思想問題><周作人全集,4卷> 172~173쪽.

임은 교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즉 문화선전과 교육 -인용자) 정치에 있다고 밝힘으로서 은연 중에 汪精衛 동아연맹론의 ‘정치독립’의 주장도 연상시키고 있다.<sup>27)</sup>

이에 대해 片岡鐵兵은 周作人에 보낸 답신에서 “생존의 욕망이 억눌려져서는 안된다면서 대동아전쟁에 협력한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이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이 글은 대동아전쟁에 저항하거나 혹은 적어도 전쟁에서 방관입장을 취하는 일부 중국인의 태도에 전통 도덕적 기초를 제공하여 정당화시킨 것”<sup>28)</sup>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함의를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소위 ‘반동 노작가사건’은 사실상 周作人의 승리로 귀결됐다. 그리고 종전 후 친일파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의 경과는 일본에 의해 ‘대동아사상의 적’으로 몰리면서 周作人이 나름대로 일본 측의 노예화교육에 저항했던 반증으로 제출되었다. 하지만 중국최고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청원인(周作人-인용자)은 僞職에 있으면서 적들과 동일 전선에 서서 전면 화평을 주장하고 항전의 국책을 반대하였다. 이 글(<중국의 사상문제> -인용자)이 비록 적에게 我國을 통치하는 헌책을 올린 것이라고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적의 압박 하에서 僞政府가 발한 호소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일본문화보국회 片岡鐵兵의 반대가 있었다고 해서 적과 내통하여 나라를 반역한 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sup>29)</sup>

중국최고고등법원은 片岡鐵兵의 강력한 공세를 불러왔던 직접 요인, <중국의 사상문제>가 결국 “화평을 주장하고 항전에 반대한”, “汪精衛정부

27) 이는 당시 동아연맹의 주요 지도자로 변신한 繆斌이 “華北에서의 공산당 발호는 치안이 확립되지 못한 때문인데, 치안이 확립되지 못한 것은 일본점령지에서 중국인의 주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상통한다. 배경한: <중일전쟁시기의 汪精衛정권과 新民會> 참고.

28) <片岡鐵兵致周作人信>, 孫郁 주판: <回望周作人-國難聲中> 162~164쪽 참고.

29) <最高法院特種刑事判決>, 王錫榮: <周作人生平疑案> 320쪽에 전문 수록.

(偽政府)가 발한 호소를 대표”하며, 그것은 결국 “적과 동일 전선에 선” 것이라는 논리로 周作人の 유죄를 확정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중국의 사상문제>는 汪精衛정부의 정치적 주장과 동케이고, 汪精衛정부란 또한 적(일본)과 마찬가지로는 논리로서, 抗戰을 경험하며 역사로 삼았던 중국 정계나 학계계의 汪精衛정부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사상문제>를 둘러싼 관계를 살펴보면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점령지 北京이란 특수한 공간을 중심으로 南京의 汪精衛정부, 그리고 重慶 延安 등 항전지구, 그리고 일본이란 공간을 걸쳐 형성된 정치 문화역학의 문제를 담고 있다.

<중국의 사상문제>는 1942년 5월, 汪精衛를 수행하여 滿洲國에 갔다 南京으로 돌아온 뒤 中央大學에서 강연했던 내용을 근거<sup>30)</sup>로 정리되어 1943년 1월 北京 <中和月刊>에 발표됐다. 과거 별다른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華北政務委員會 요인 가운데 오직 周作人만이 汪精衛와 동행했고, 이전부터 周作人이 汪精衛를 대단히 높이 평가<sup>31)</sup>했으며, 周作人이 華北政務委員會 교육독판직을 물러난 뒤에도 汪精衛중앙정부는 여러 모로 周作人을 예우<sup>32)</sup>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정치적 성향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周作人이지만 최소한 그가 汪精衛와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스스로 <중국의 사상문제>는 “당시 新民會의 중심사상 수립을 저지하고 대동아 신질서의 호소에 호응하기

30) 紀果庵: <知堂先生南來印象追記>, 孫郁 주편: <回望周作人—國難聲中> 138~139쪽.

31) 周作人: <汪精衛先生庚戌蒙難實錄序> <古今> 제4기, 張菊香 등: <周作人年譜> 632쪽 참고. 周作人은 이 글에서 汪精衛의 행위를 志士仁人の “投身餓虎”로 평가하고 있다. 정치적인 수사라고 볼 수 있지만 이후 周作人の <老虎橋雜詩>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投身餓虎’로 대표되는 ‘忍辱’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끈다.

32) 교육독판직에서 물러난 이후, 周作人이 받은 北京에서의 모든 직위는 명의상 汪精衛중앙정부의 명의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汪精衛정부에서 임명한 것은 1943년 偽國民政府 위원, 중앙연구원준비위원, 그리고, 南京中央大學 총장(사양) 등이다.

위해”<sup>33)</sup> 쓴 것이라 언급한만큼 그것이 암암리에 汪精衛정부의 정치주장과 내용상 정서상 무관하지 않으리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汪精衛정부의 정치주장은 ‘동아연맹중국총회’의 4대 강령의 ‘정치독립’ ‘경제계휴’ ‘군사동맹’ 및 ‘문화소통’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汪精衛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정치독립’이었고, 일본점령당국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었던 新民會는 바로 이 부분에서 동아연맹과 대립<sup>34)</sup>했다. 汪精衛정부가 정당성의 근거로 삼고자 했던 ‘대아시아주의’와 ‘정치독립’이 서로 모순되는 것인지, 따라서 처음부터 별 의미가 없었던 것인지를 이 글에서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필패론 속에서 군사적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평화적 사태 해결을 기대하던 周作人이 汪精衛정부의 ‘정치독립’의 주장에 공명을 일으켰으리란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이 최소한 汪精衛의 정치주장에 모종의 연대의식을 느끼고, 암암리에 화답한 것만은 사실인 듯하다.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周作人이 이 글을 발표할 당시 여전히 華北政務委員會의 요직에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다. 명목상 汪精衛정부가 새로운 중앙정부가 되었지만 華北지역에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점령당국과 직접관계에 있었던 華北政務委員會의 교육독판이 新民會의 사업을 비판하고 汪精衛정부의 정치주장을 외곽에서 지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글이 일본에 번역되면서 여기에 강렬하게 감수한 片岡鐵兵이 강력히 반발<sup>35)</sup>하고, 나아가 일본문학보국회로 대표되는 전시 일본문화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일은 그 의미를 꼽씹어봐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중국의 사상문제>로 대변되는 그의 글쓰기 행위는

33) 周作人: <苦茶-周作人回想錄> 457쪽.

34) 배경환: <중일전쟁시기의 汪精衛정권과 新民會> 참고.

35) 周作人은 沈啓無라는 경로를 통해 <중국의 사상문제>가 片岡鐵兵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했지만, 片岡鐵兵은 자신이 《改造》잡지에 번역된 글을 읽었음을 밝히며 周作人에게 “일본인의 감수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北京점령지구, 南京중앙정부지구, 國통구와 公통구, 그리고 일본을 포함하는 각각의 공간에서 독특한 의미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 VIII. 맺는 글

전시 점령지 北京이라는 특수한 문화공간 벌어졌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구분과 갈등, 조직과 기구의 성립과 소멸 과정은 결국 北京의 특수한 정치역학 속에서 문화적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것은 또한 각자의 삶의 태도 및 방식과 연관되어 있었다. 필자는 중일전쟁 시기 北京이란 문화공간을 들여다보며, 언론이 막히고, 행동과 표현이 제한을 받으며, 때로는 일신의 안녕이 위협받는 점령지에서도 그곳의 문화인들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화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때로는 노회한 타협 속에서, 때로는 소극적인 저항 속에서 생존의 공간을 만들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안에는 물론 굴욕적인 부분, 민족적 비난을 받아 마땅한 부분, 또한 행동과 실천으로의 지향이 결여된 관념적 자기위안 같은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평가는 더 신중해야 할 것 같다. 역사적, 혹은 민족윤리적 평가가 물론 의미 있겠지만, 北京은 그들이 일상을 영위했던 생존공간이었고, 그들의 행위는 모종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다.

### < 參考文獻 >

- 《周作人全集》, 藍燈文化事業有限公司, 1992.  
 張鐵榮 等 編: 《周作人集外文集, 下》 海南國際新聞出版中心, 1995.  
 周作人: 《苦茶-周作人回想錄》, 敦煌文藝出版社, 1995.  
 周作人: 《知堂書信》, 華夏出版社, 1994.

- 錢理群 主編: 《淪陷區文學大系, 史料卷》, 廣西教育出版社, 2000.
- 張泉: 《淪陷時期北京文學8年》, 中國和平出版社, 1994.
- 錢理群: 《周作人傳》,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2.
- 張菊香 等 編著: 《周作人年譜》, 天津人民出版社, 2000.
- 程光燁 編: 《周作人評說80年》, 中國華僑出版社, 2000.
- 孫郁 等 主編: 《回望周作人—國難聲中》, 河南大學出版社, 2004.
- 王錫榮 著: 《周作人生平疑案》,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5.
- 木山英雄 著, 趙京華 譯: 《北京苦住庵記》, 三聯書店, 2008.
- 杉野要吉 張泉: <直面歷史: 抗戰時期的中日文學糾葛>, 《北京社會科學》, 1996년 2기.
- 張泉: <華北淪陷區文學研究: 歷史現狀及展望>《北京社會科學》, 1999년 1기.
- 張泉: <抗日戰爭時期淪陷區的言說環境>《抗日戰爭研究》, 2001년 1기.
- 王鳳海: <對‘淪陷時期北京文學8年’一書的政治評價>《北京社會科學》, 1997년 4기.
- 張泉: <關於大東亞文學者大會>, 《新文學史料》, 1994년 2기.
- 木山英雄: <大東亞文學者大會與周作人>,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8. 1기.
- 丸川哲史: <日中戰爭的文化空間—周作人與竹內好>, 《開放時代》, 2006년 1기.
- 黃開發: <沈啓無一人和事>, 《魯迅研究月刊》, 2006년 3기.
- 黃開發 整理: <沈啓無自述>, 《魯迅研究月刊》, 2006년 3기.
- 최원식 · 백영서 역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문학과지성사, 1997.
- 함동주: <전후 일본 지식인의 아시아주의론>, 《동아시아문제와시각》, 게재. 문학과지성사, 1995.
- 백영서 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창비, 2005.
- 마스이 야스이치 지음: 《중국 대만 친일파재판사》, 한울, 1995.
- 배경한: <중일전쟁시기 중국에서의 동아연맹운동과 汪精衛정권>, 《중국

근현대사연구》 21집.

배경한: <중일전쟁시기 汪精衛정권과 新民會>, 《동양사학연구》 93집.

신정호: <중국 친일문학연구의 시각과 쟁점,1>, 《중국어문학》 48집, 2006.

김미정: <중일전쟁시기 周作人の 친일행위에 관한 일고찰>, 《중국현대문학》 20집, 2000.

### <中文提要>

1937年中日战争爆发, 同一年7月29日北京沦陷. 与此同时, 北大、清大相继宣布南迁, 学术文化界人士纷纷南下. 在这种情形下, 周作人却执意留京. 对于他的留平动机乃至后日任华北政务委员会教育督办, 成为高级亲日官僚一事, 早已众口纷坛. 但本文旨意不在此, 暂且搁置. 本文关注的对象是沦陷区人的生活基地与活动空间一身的北京. 战争连绵不断, 使北京的政治、军事、经济格局发生重大变化, 同时对北京的文化环境, 尤其是对北京文化人的生活造成了巨大的影响. 面对剧变所持的态度因人而异. 但当时的“政治力学”与身处其中的文化机构和团体的冲突, 自然有意无意地限制了他们的生活方式与态度. 在如此的北京文化空间, 名副其实的代表人, 正是文化名人周作人.

随着中日战争长期化, 沦陷之下自然而然产生了对于文化的需要和渴望, 周作人的身边的人中出现了劝其执笔写作的动向, 因在大多数文学家已离京的状况下, 除了周作人以外, 不可能再另有求心点. 于是, <朔风><中国文艺>等文艺刊物吸收了以周作人为首的沈黙中的文人学者们, 并取得了相当程度的成果. 这证实了在沦陷区的北京, 周作人的文化地位仍然扎实, 甚至标榜纯粹文艺的其他刊物杂志社也争先恐后加入同周作人约稿的行列, 是否刊载周作人之作不知不觉形成了衡量刊物质量的尺度. 但随着日本当局开始着手于对沦陷区文化的控制, 周作人逐渐被视为眼中钉, 具有古都文化人气氛的周作人的不着边际的态度和言说, 足以引起日本当局的不满. 1940年12月,

特别是任华北政务委员会教育督办伪职的周作人，其活动方式及范围距日本军部所期待的积极活跃的亲日宣传活动相差甚远，仅限于一个普通官僚的日常工作而已。因此，日方有关人员开始另寻计策，试图物色别人。从此，北京文坛呈现以周作为轴心的文人学者团体和以日本势力为靠山的新进文人群体分化的局面。其中典型人物有周作人的弟子沈启无和创作转向的日本作家林房雄。

林房雄的介入导致了北京文坛的二分化，新进少壮团体以其少壮性来与周作人的‘艺文社’争长竞短，而年轻气盛的少壮团体，并不是仅凭年纪作为区别的标志，而且还有其他对立性特征的。从1942年起，最为显眼的是从‘满洲’流入北京的一群青年开始形成了华北作家协会的主流。这些文学青年是积极赞颂‘大东亚文学’的崇拜者，他们试图通过投身于“大东亚文学”，扫除荡保持沉默的‘老作家’团体的软弱无力的状态。强烈的逆反心理使他们投奔<武德报>和林房雄，而不是周作人。在第二届大东亚文学者大会上，片冈铁兵针对周作人的<中国的思想问题>所作的挑战性发言也正基于这一点。

就片冈铁兵事件而言，无论经过如何，最终胜利者仍是周作人。不过，围绕<中国的思想问题>的政治力学并不是那么简单的。<中国的思想问题>虽然正式使用大肆呼吁大东亚共荣圈的日方的‘共存共荣’等用语，但文章的要旨则是不许侵犯中国人民的生存本能，而重视生存的现世态度是源于儒家传统的中国特有的健全思想。而且揭示了乱世的‘责任’不在于教化（即文化宣传与教育：笔者）而在于政治，无形中令人联想起汪精卫的“东亚联盟论”提倡的“政治独立”。对此片冈铁兵在致周作人的答信中坚持“此文无非将使拒否大东亚战争，或至少亦对于此战争出于傍观地位之一部分，中国人之态度予以传统道德之基础，而使之正当化耳”的观点，大概正是他读出了其中蕴涵的政治立场。

所谓片冈铁兵的‘反动老作家’案件，实际上以周作人的胜利拉下了序幕。不过 终战后，在周作人的汉奸案审理中，中国最高法院对此案件作出了如下判决：

声请人身任伪职，与敌人立于同一阵线，主张全面和平，反对抗战国策，此种论文虽难证明为贡献敌人统治我国之意见，要亦系代表在敌人压迫下伪政府所发之唿声，自不能因日本文学报国会代表片冈铁兵之反对而解免其通敌叛国之过责。

总之，中国最高法院以<中国的思想问题>是“主张全面和平，反对抗战国策”的“代表汪精卫政府(伪政府)所发之唿声”，从而就是“与敌人立于同一阵线”的推论，判决周作人为有罪。换言之，就是<中国的思想问题>和汪精卫的政治主张处于同轨，而汪精卫政府亦和日本侵略者一样的理论。它反映了经历抗战，并以其为自己历史的中国政界、学术界对汪精卫政府的普遍认识。实际上，<中国的思想问题>这篇文章，隐藏着以沦陷区北京这特殊空间为中心的南京汪精卫政府、重庆 延安等抗战地区，加上日本也涵盖的文化空间形成的个政治文化力学的问题。

周作人和汪精卫互相高看一格则大概是事实。关于<中国的思想问题>的写作动机，周作人曾提出是“阻止那时伪新民会树立的中心思想，配合大东亚新秩序的叫嚷”。据此我们可以推断出<中国的思想问题>暗地里和汪精卫政府的政治主张不是无关的。汪精卫政府的政治主张是集中表现在‘东亚联盟中国总会’提出的四大纲领上，即‘政治独立’、‘经济协作’、‘军事同盟’、‘文化沟通’。其中，汪精卫政府倾注最大关注的是‘政治独立’，而这正是和受到日本占领当局直接统制的新民会对立的一面。在此我们不难窥见，周作人对战争坚持必败论的观点，正是以军事失败主义为出发点，期待着从另一个角度——非军事性战略，进行平和的事态解决，所以汪精卫政治主张必引起他的共鸣。在这里，值得关注的是，当发表<中国的思想问题>时，他仍身处华北政务委员会要职，担任着华北政务委员会教育督办，却发表批评新民会工作，轮廓性地支持汪精卫政府的政治主张的言说，并非凡事。不仅如此，文章引起片冈铁兵的强烈攻势，影响到战时日本文化界，成为国际争论焦点之一，也是耐人寻味的事。以<中国的思想问题>为代表的周作人的写作行为，在中国各地域及日本在内的多维文化空间，构建并具备了独特的意义。

주제어 : 中日战争, 北京, 文化空间, 文化机构, 华北政务委员会, 汪精卫,  
日本, 政治·文化力学, 周作人